

우성타이어 (주)

우성타이어 후원 카레이싱팀  
‘허리케인’, 드래그 레이싱 우승

‘한국자동차협회’가 주관하고 ‘월간 AUTO스포츠’가 주최하는 ’96 카레이스 해변축제 ‘드래그 레이스 쇼’가 지난 8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에 걸쳐 삼봉해수욕장 (충청남도 태안반도 서해안 해상국립공원)에 마련된 특설 경기장에서 수많은 관람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펼쳐졌다.

이번 자동차 경주대회는 삼봉해수욕장에서 개최되는 ‘여름해변축제’행사 가운데 하나인 국내 최초의 드래그 레이스로서 노래경연대회를 비롯한 야외부패, RC(무선 모형카) 시범 등의 다양한 이벤트를 동시에 실시하여 자동차 경주를 보기 위해 몰려든 관람객들뿐만 아니라 무더위를 잊기 위해 바다를 찾아온 수많은 여름 피서객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드래그 레이스 쇼’에서 우성타이어(주)가 후원하는 카레이싱팀 ‘허리케인’은 정열을 상징하는 붉은색 바탕에 백색, 노랑, 그린색을 이용한 우성타이어 로고로서 새롭게 도색한 레이싱카를 선보이며 우승을 비롯한 각 순위의 트로피를 휩쓸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96 우성타이어 여름학교 개설

지난 8월 19일부터 20일까지 사우가족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96 우성타이어 여름학교를 운영하였다.

이번 ’96 우성타이어 여름학교는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에게 맘의 현장을 방문하는 기회를 제공, 이를 통하여 회사에 대한 친근감과 가족애를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지난해의 사우가족 공장방문 행사에 이어 두번째로 실시되었으며,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총 41명의 사우가족들이 참가하여 공장견학 및 컴퓨터 교육을 받았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컴퓨터 교육은 최근 가정에서의 컴퓨터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어린이들의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생산부문 직원 대상  
친선바둑대회 열려

우성타이어(주) 생산부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친선 바둑대회가 생산관리팀 주최로 지난 7월 19일부터 8월 2일까지 열렸었다.

이번 친선바둑대회의 대전 방식은 예선리그를 거쳐 결선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바둑을 즐기는 많은 직원들이 참가하여 평소에 같고 닮은 바둑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대전 결과 1위는 예선에서 8승 2패로 결승에 진출한 ‘B 생산팀’의 황인준 사우가 차지했으며, 2위는 윤형노(R생산팀) 사우, 3위는 정주근(R생산팀 제조2과) 사우, 4위는 신용섭(R생산팀 생산기술과) 사우에게 각각 돌아갔다.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사진 접수

우성타이어(주)에서는 홍아타이어 시절(1958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회사의 역사와 기업문화를 엿볼 수 있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사진(기념품이나 광고 사진 포함)을 모으고 있다.

일터에서의 모습을 담은 사진, 동료들간의 추억을 담은 사진, 공장 내·외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 그밖에 회사나 각 부서에서 주최한 체육대회 또는 야유회 등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 지난날의 그리움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의 사진으로서 채택된 사진은 ’97년 1월호부터 사보를 통해 소개된다.

사진을 보낼 때는 사진 뒷면에 인적사항 및 사진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사진가치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 접수기간 : 1996.10.1

~1996.12.30까지

● 접수처 : 기획팀, 노조사무실, 각 부서 주재기사  
(우편접수는 기획팀 사보 담당자 앞)

## 한국타이어제조(주)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방문

지난 8월 23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는 최근 수출부진 타개를 위해 산업현장 시찰중이던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의 방문과 함께 수출촉진 대책수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타이어 대표이사 홍건희 사장은 회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개하고 타이어 수출현황과 향후 수출증대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설명했다. 이에 박재윤 통상산업부 장관은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수출 주력품목으로 떠오르고 있는 타이어업계의 노고를 치하하고, 타이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과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박재윤 장관은 홍건희 사장과 함께 한국의 타이어산업의 메카인 대전공장의 생산공정을 둘러보면서 현장 사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타이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하였다.

### 제 1회 한타 어린이 과학캠프

여름방학동안 캠프생활을 통하여 창의력을 키우고 탐구심을 배양시키고자 한국타

이어 문화교육팀에서는 사원 자녀들(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학캠프 행사를 실시했다.

지난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행해진 이번 행사는 사원가족의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타인들의 한마음 의식 고취를 위해 앞으로도 매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안성 소재 엄마목장에서 펼쳐진 제 1회 한타 어린이 과학캠프에 참가한 총 160여명의 어린이들은 별자리 찾아보기, 로켓 만들기, 나뭇잎 관찰하기 등 다양한 과학 프로그램과 촌극 경연대회, 신나는 수중 올림픽 등으로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지칠줄 모르는 채 캠프 일정을 무사히 끝마쳤다.

또한 3일차에는 대전공장을 방문하여 부모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제법 의젓하고 질서있게 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다.

### 제 4회 청소년 여름음악회 성대하게 열려...

한국타이어 한마음회관에서는 지난 8월 16일 저녁 방학을 맞이한 청소년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여름음악회를 개최했다.

올해들어 4회째를 맞이한 이번 여름음악회는 여름방학을 맞이한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문화를 한층더 승화시켜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했고, 지역주민에게는 더욱 친근한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번 음악회는 한마음회관 200여 좌석을 꽉 메우고도 자리가 모자라 서서 관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해설과 감동이 있는 여름낭만음악회’라는 명칭으로 실시된 이번 음악회는 음악평론가 탁계석 씨가 해설을 곁들였고, 최인애(소프라노), 이 현(테너), 정미애(피아노), 김복현(바이올린), 유민선(기타) 등이 참가하여 한여름 밤의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 고객만족 실천/휴가철 타이어 무상안전점검 캠페인 실시

고객만족과 안전을 위해 해마다 실시하고 있는 한국타이어의 휴가철 안전운전 캠페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실시되어 피서지를 찾아 떠나는 고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지난 7월 26일부터 29일까지, 8월 2일부터 5일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타이어 무상안전점검 서비스는 망향(경부) 추풍령(경부) 하행선 휴게소와 중부(중부), 소사(영동) 휴게소에서 내수영업 부문과 고객만족팀, (주)한국전지의 A/S 전문요원과 지원인원, 도우미 등 9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태양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안전운전을 위해 8일동안 펼쳐졌다.

금호타이어(주)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  
공장 방문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박재운 통상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가 지난 8월 28일 광주공장 본관 2층 대회의실에서 있었다.

‘다른 수건을 짜서라도 수출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는 박 장관은 수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달 전국의 대형 사업장을 돌며 노·경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증대를 위한 업계의 고충을 청취해 왔다.

8월 28일 오후 2시쯤 광주공장에 도착한 박 장관은 기획담당임원 조자연 상무로부터 회사현황을 소개받고 녹차를 마시며 박정구 회장과 남 일 사장, 임원, 조삼수 노조위원장, 주부사원 등과 간담을 갖고 공장 제조현장을 돌아보았다.

’96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  
대회서 금상 등 수상

’96 전국 품질분임조 경진에 참가한 곡성공장 새아침분임조가 현장개선분야에서 금상을, 광주공장 호돌이 B분임조가 TPM 분야에서 은상을 수상하였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개선활

동과 분임조활동을 꾸준히 해온 새아침분임조와 호돌이 B분임조는 회사의 손익에 유형, 무형의 절감효과를 여러 번 거둔 바 있으며 이번 발표제목은 ‘솔더스트립의 품질향상’, ‘이송설비 종합효율 향상’이다.

또한 ’96년도 모범분임조 전국발표대회에 참여한 하나스틸 I분임조가 영예의 대통령 금상을 수상하였다.

우리그룹 조선대학교에  
발전기금 10억원 기탁

우리그룹의 박정구 회장은 ’96년 9월 6일 오후 3시 30분 조선대학교 총장실에서 조선대학교 발전기금으로 10억원을 김기삼 조선대학교 총장에게 기탁하였다.

박정구 회장과 조선대학교 김기삼 총장 및 관계 임직원들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정구 회장은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산학협동을 위한 조그만 일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크지 않은 지원이지만 우리나라를 위한 인재양성에 사용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조선대학의 김 총장도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대학의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금호그룹에 감사를 드리며, 기탁한 기금은 학문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조선대학교에서는 이 기금

을 기탁받아 학교의 장기발전을 위해 사용하게 되며, 우리그룹은 총 기탁금 10억원중 1차로 5억원을 직접 전달하였다. 우리그룹은 지난 ’94년에도 전남대학교에 30억원을 기탁한 바 있으며, 연세대와 고려대에서는 석좌교수(碩座教授) 기금을 통해 금호석좌교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조위원장 김선진, 지부장  
김옥진 사우 당선

우리회사 노총조합 14대 위원장과 6대 지부장 선거에서 위원장에 김선진 사우, 지부장에 김옥진 사수가 당선되었다.

8월 30일 곳은 날씨 속에 구동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된 이번 선거에는 8명의 위원장 후보와 3명의 지부장 후보가 출마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유세를 하였으며, 꿈모아와 문선대의 화려한 춤과 노래가 대회장의 분위기를 한껏 돋우었다.

11시 30분부터 시작된 1차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광주공장 92.5%, 곡성공장 89%로 위원장에 김선진, 임영기 후보가, 지부장에 김옥진, 장치운 후보가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지 못하여 2차 투표에서 경합을 벌여 투표자의 50.39%의 지지를 얻은 김선진 사우와 52.38%의 지지를 얻은 김옥진 사수가 각각 14대 위원장과 6대 지부장이 되었다.